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언론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, 언론의 4이론(Four Theories of the Press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1593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어느 나라에서는 신문이 정부의 허락 없이는 한 줄도 찍지 못하고, 어느 나라에서는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기사가 날마다 실립니다. 같은 '언론'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하는 일과 지켜야 할 약속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이토록 다릅니다. 도대체 언론은 누구를 위해, 어떤 원칙으로 움직여야 할까요? 이 물음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틀을 내놓은 책이 1956년에 나온 『언론의 4이론(Four Theories of the Press)』입니다. 프레드릭 시버트, 시어도어 피터슨, 윌버 슈람 세 사람이 함께 쓴 이 책은 세계의 언론을 권위주의, 자유주의, 사회적 책임, 소련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네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했고, 오랫동안 언론 비교 연구의 기본 교재로 읽혔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네 가지 이론이 각각 무엇을 믿었는지, 사회적 책임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, 이 틀이 받은 비판과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언론의 역할을 가르는 네 가지 생각 권위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 먼저 두 이론은 '진실은 누가 찾는가'라는 물음에서 갈립니다. (1) 권위주의 이론(Authoritarian Theory)르네상스 후반 유럽에서 자리 잡은 생각으로,